5.18 맞아 민주열사 희생 기리고 명복 빌어

김승수 전주시장, 노송광장 표지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18일 5.18 36주년을 맞아 시청 노송광장에 세워진 '5.18 민주화운동 표지석'에서 민주열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노송광장은 1980년 당시 전주역 광장으로 전국이 민주화 열기로 가득했던 상황에서 전북지역 대학생 2만여명이 모여 연합집회를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 공무원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했던 열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유지를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맞선 역사적인 민주항거"라면서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지역사회의 뿌리를 찾는 지표로 삼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김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맞선 역사적인 민주항거"라 평했다

전주시통합유도회, 소년체전 출전 유도선수에 격려금

전주시통합유도회(회장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오는 28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 유도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남초등부 -43kg 정진안(우전초등), 남중부 -81kg 정태수(전북중), -90kg 조재욱(전북중), 90kg 송우혁(전북중), 여중부 -70kg 고가영(전북중) 등 총 5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권순태 회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 목적하는 바를 꼭 달성해 지역대표로써 명예를 떨치고 개인에게는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청, 전미동 연봉마을 주민쉼터 공원조성나서

전주시 덕진구청은 전미동 연봉마을 주민을 위한 쉼터와 공원 조성에 나선다.

18일 덕진구에 따르면 전주 북부지역 열악한 환경의 농촌마을에 오는 6월부터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315㎡, 건물연면적 61㎡, 지상1층 규모의 주민쉼터와 공원을 조성,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연봉마을 주민쉼터 공간은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주민들의 공동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주민회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쉼터는 연봉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동작업소로 활용, 공동체 협동 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전미동 연봉마을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동휴식 공간 및 주민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해 주민회합을 통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드는데 덕진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부 음

김택곤 (전주방송 대표이사)씨 **장모상**

-별세일: 18일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 2016. 5. 20(수)
-연락처 : 063-250-1439

결 혼

▲**신광영**(전주매일신문 정경부장, 최경숙씨 막내)군·**유지선**(유영안·김복남씨 막내)양= **일 시** : 21 일(토) 오후 2시 30분 **장 소** : 전주 오펠리스(구.웨딩캐슬) 2층 러브홀릭홀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산동 주민센터, 직원 친절 · 청렴교육 실시

완산동 주민센터(동장 김길례)는 18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365일 친절·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복무자세 확립, 생활민원 관리철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완산동 김길례 동장은 "친절 마인드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다"며 "친절한 인사 및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우리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농어촌公 부안지사, 독거노인 찾아 '행복한 진짓상' 배달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안군 부안읍 김순남(83세)씨 가정을 방문하여 '행복한 진짓상' 첫 배달행사를 가졌다.

'행복한 진짓상'은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독거노인의 건강증진과 고독감을 해소하려고 마련되었으며, 매주 1회 노인 맞춤형 건강 도시락 배달과 안부확인 서비스를 펼쳤다.

김병수 지사장은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행복한 진짓상을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91명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정수)은 지난 18일까지 관내 9개 초 · 중 · 고등학교와 무주출신 명문대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2016 지역으뜸인재 학생 91명에게 장학금(초등생 1인당 50만 원, 중·고등생 1인당 6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신입생(성적우수)들과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성적우수 장학생, 초·중·고 특기 장학생, 그리고 향토장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이사장은(무주군수)는 지난 17일 무주중학교와 무주고등학교를 찾아 무주중 1학년 유설희 학생 외 1명, 무주고 1학년 이동호 학생 외 40명을 만나 격려했으며, 18일에는 안성초등학교 5학년 최수린 학생 외 1명과 안성고등학교 1학년 김성현 학생 외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무풍초등학교 5학년 박찬용 학생 외 1명, 설천초등학교 4학년 고민준 학생 외 3명, 설천중 2학년 선학중 학생, 설천고 1학년 이연지 학생 외 17명, 서울대 농업생명과학과 4학년 김민수 학생(4백만 원)이 장학금을 받았다.

황정수 이사장(무주군수)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서는 여러분이 무주에서 나고 자라 공부한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을 뒷받침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등 근절 캠페인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김용대)는 "18일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 아동안전지킴이·실버경찰대와 함께 관공서 주취소란·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공서 주취소란 및 112허위신고 행위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근절하고 관공서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형사처벌이 강화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경찰관서의 소란 난동행위 및 112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어 범죄행위로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상을 기다리고 있는 박종관 대표 (좌측에서 3번째)

푸른에스앤피 박종관 대표, 전북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

주식회사 푸른에스앤피의 박종관 대표가 전라북도가 선정한 '제14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다.

1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공헌부분 상을 수상한 박종관 대표는 평소 지역인제 채용에 앞장서고 지역 환경을 위해 최신 대기배출 시설을 구축하는가 하면,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매년 연탄기부, 쌀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을 수상한 박종관 대표는 "기대치 않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예방 TWO라이트 캠페인 전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18일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TWO 라이트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도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9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16개 교차로에서 일제히 펼쳐진 이날 캠페인은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에도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를 유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운전자들을 상대로현수막과 피켓, 어깨띠 등으로 TWO 라이트 캠페인을 알리고 전북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부채와 전단지 등을 제공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북청 관계자는 "켜고 지키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22일 TWO 라이트 캠페인 전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진수기자

덕진구, 노점상 · 노상 불법적치물 야간일제단속

덕진구는 보행자의 편의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노점상과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덕진구에 따르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경제교통과 직원 9명을 2개 단속반으로 구성, 대학로와 전주역 주변, 모래내 알짜시장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다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은 경고장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계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를 위해 행정력이 취약한 야간에 집중된다. 올들어 야간단속에서는 과태료 부과 5건, 계고장 발부 32건, 즉시철거 19건, 자진정비유도 40여건 등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30여건을 정비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민원다중 발생지역에 대한 야간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진안군 상전면사무소, 합동대청소 실시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종환)은 지난 17일 바르게살기운동 상전면협의회(회장 원덕희)와 합동으로 용담댐 상류지역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청정상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과 주민,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용담호변 및 도로변 2km 구간에 걸쳐 빈병, 비닐 및 영농쓰레기 3톤을 수거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쓰레기 3NO운동(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등의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했다.

김종환 면장은 "청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단체 및 주민 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상전, 용담호 맑은물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